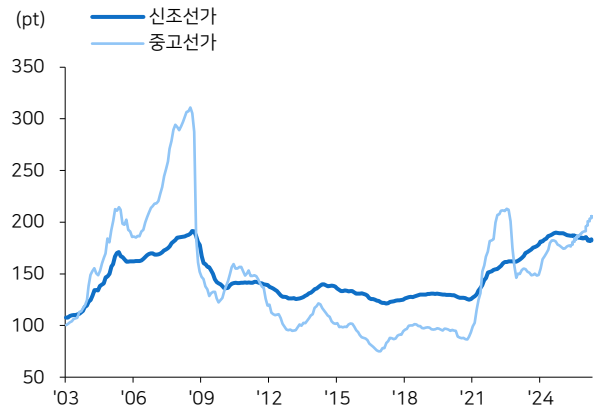
2026. 4. 30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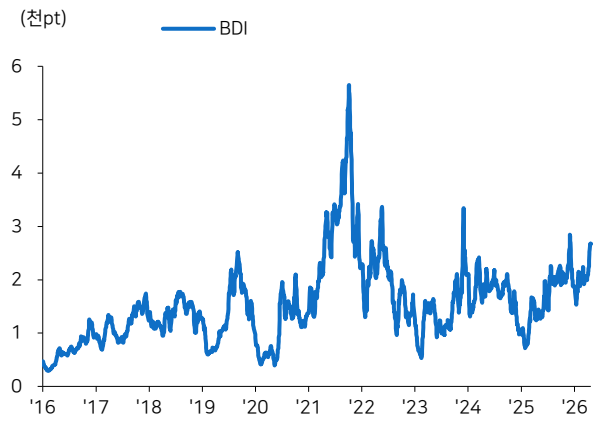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3.4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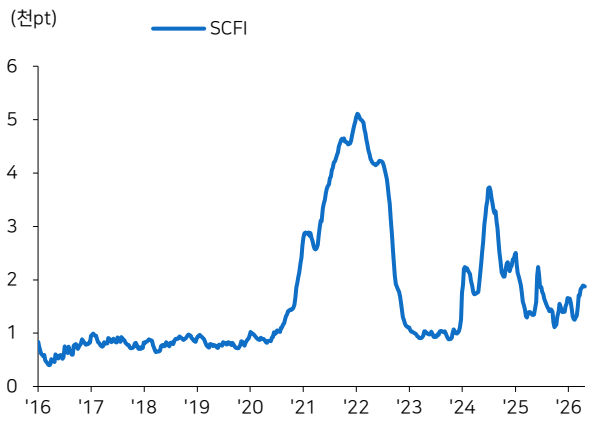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05.0달러 (+6.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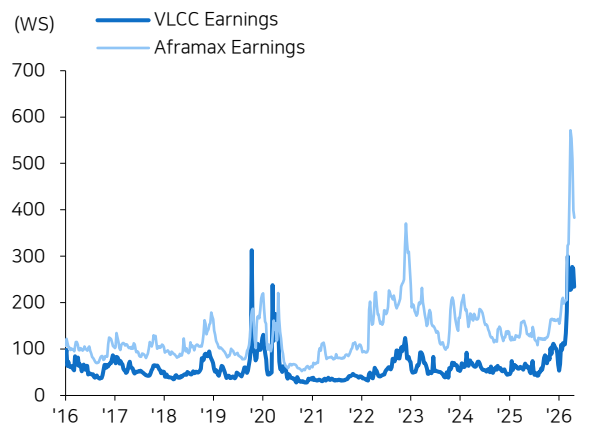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677.0p (+1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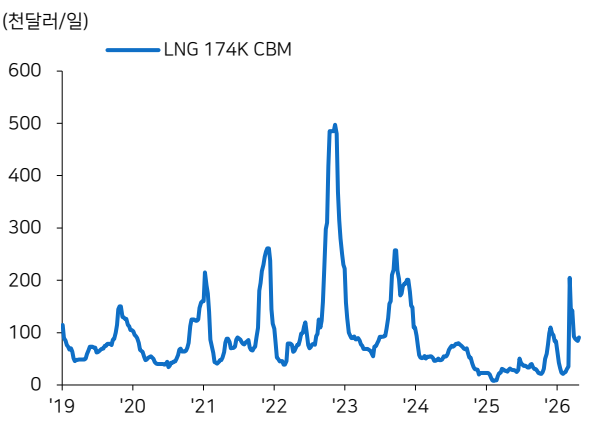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875.3(-11.3 WoW)



VLCC Spot Rate 234.1WS (-38.8p WoW)



LNG Spot 운임 91.0천달러 (+6.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서 'K9 현지 생산' 제안" (연합뉴스) https://zrr.kr/VTc5Cp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 참여 중인 한화가 수주 성공 시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현지에서 전량 생산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다고 보도됨. 현지 매체 CTV에 따르면 한화는 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사협회(APMA)와 파트너십을 맺고 '메이드 인 캐나다' 무기 생산을 약속했으며, 이는 경제적 혜택과 현지 고용 창출 비중이 높은 캐나다 당국의 입찰 평가 기준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승부수로 전해짐.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원팀 컨소시엄은 독일 TKMS과 함께 최종 후보군에 올라 경쟁 중이며, 보완된 입찰 제안서 마감일인 29일을 기점으로 수주전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알려짐.

HD 현대중공업, '덴마크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 호위함 입찰 도전장 (더구루) https://zrr.kr/pFxZ1q

HD현대중공업이 덴마크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10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유럽 주요 5개국 조선소들과 수주 경쟁에 나섰다고 보도됨. 회사는 6,000톤급 수출형 모델인 HDF-6000을 제안하며 경쟁사 대비 20~30% 저렴한 가격과 3년 6개월 이내의 신속한 인도 및 철저한 납기 준수를 강점으로 내세웠다고 전해짐. 특히 최근 안보 위협으로 빠른 전력화를 원하는 덴마크 정부의 기조에 맞춰 현지 조선소와의 건조 협력 및 기술 이전 등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통해 연내 사업자 선정을 노리고 있다고 알려짐.

조선·해운 '원팀' 선언...공동발주로 선대·일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더구루) https://zrr.kr/aBwap5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중동 분쟁에 따른 해상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자 조선 · 해운업계와 손잡고 민관 협력체계인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의회는 초격차 기술 확보(W), 산업연계 동맹(A), 국적 선대 확충(V), 상생 혁신 생태계(E)를 골자로 하는 'W.A.V.E.' 전략을 발표했으며, 국적선 공동발주 모델을 통해 국내 조선소는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해운사는 경제적인 선대를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고 전해짐. 특히 6,000억 원 규모의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LNG 수송 협력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금융 ·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MASGA의 범위를 해운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알려짐.

HII's Ingalls Shipbuilding is Awarded FF(X) Frigate Lead Yard Support Contract (Naval News) https://zrr.kr/T4xHS4

미국 해군이 차세대 호위함인 FF(X) 함급의 리드 야드 지원 업무를 위해 HII(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산하 잉걸스 조선소와 약 2억 8,3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은 2025년 11월 기존 컨스텔레이션급(FFG-62) 호위함 프로그램이 비용 상승과 설계 문제로 취소된 이후, 미 해안경비대의 레전드급 NSC 설계를 기반으로 한 보다 작고 민첩한 FF(X)를 조기에 전력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해짐. HII는 자재 조달과 설계를 시작하여 2028년 첫 함정 진수를 목표로 하며, 이는 미 해군이 고성능 다목적함 대신 신속한 생산과 경제성을 강조하는 로우-미디엄-하이(Low-Medium-High) 함대 구성 전략으로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알려짐.

Greek owner JHI Steamship explains VLCC orders after family asset split (TradeWinds) https://zrr.kr/Q8b64X

그리스 선사인 JHI Steamship이 한화오션에 32만 톤급 VLCC 1척을 발주하며 탱커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드러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2029년 인도를 목표로 하며, 선가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약 1억 2,500만 달러에서 1억 3,000만 달러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해짐. JHI Steamship은 이미 K조선(아프라막스 3척) 및 HD현대삼호(수에즈막스 2척)와 신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고효율 · 친환경 선단 구축을 통해 장거리 원유 운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려짐.

Samsung and Orca AI move autonomous navigation systems into newbuildings (TradeWinds) https://zrr.kr/e5hGrx

삼성중공업이 영국 · 이스라엘의 AI 선박 플랫폼 기업인 Orca AI와 협력하여 자사의 자율운항 플랫폼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고 보도됨.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중공업은 독자 개발한 자율운항 시스템인 SAS(Samsung Autonomous Ship)에 Orca AI의 인공지능 항법 솔루션을 표준 사양으로 탑재할 예정이며, Orca AI는 삼성중공업의 자동 이접안 지원 및 자율 속도 제어 기술을 자사 플랫폼에 통합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양사는 1,200척 이상의 실제 운항 데이터를 보유한 Orca AI의 시각 인지 기술과 삼성중공업의 선박 설계 노하우를 결합하여 신조선뿐만 아니라 기존 선박을 대상으로 한 리트로핏(Retrofit) 시장까지 공략할 방침으로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